

尹 비속어 공방...민주 “대통령 사과”·국힘 “언론 왜곡 탓”

輿 정언유착 주장하며 역공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언론노조·기협 “언론 탓 말라”

여당과 대통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비속어 논란’을 ‘언론 탓’과 ‘야당과의 정언유착’으로 몰아가며 대대적인 역공세를 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논란이라기보다는...”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밝힌 뒤 야권과 언론을 향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순방외교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충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 스테핑) 발언에 대해 이같이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더욱이 동맹을 희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다음 아닌 국민이라는 점이 (윤 대통령)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MBC의 조작·왜곡이며 더불어 민주당과의 ‘정언유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야권에 공세를 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는)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발언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 보도 윤리에 따른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MBC를 향해 “(윤 대통령 위당에)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자막을 임해 보도했다”고 지적했고, 전주혜 비대위원도 “부정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당시 윤 대통령 옆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가가 잘 협조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전후 맥락”을 들어 “MBC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잡음 탓에 뚜렷하게 들리지 않지만, 맥락상 ‘이 XX들’이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야당을 지칭했으리라는 게 분명한데도 MBC가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넣어 시청자의 인식체계를 왜곡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처럼 ‘MBC의 잘못된 보도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여론 주류의 시각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나아가 MBC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도 꺼내 들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시점은 (22일) 오전 9시33분이고 MBC의 관련 보도 시점보다 34분이 빠르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오전 문화방송 보도가 나가기 전에 대통령의 육설 영상과 내용이 온라인상에 돌았던 건 대부분의 기자와 대통령실 대변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면서 “육설 파문 진상 조사는 위장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될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육설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XX’가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 ‘XX들’이 미국 국(의)회를 일궈냈던 한국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켰던 욕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옳다”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잘못을 언론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막말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공여지책으로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 논란으로 외교 위기를 자초한 대통령의 사과와 내부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먼저”라고 요구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전남권 의대 유치 지역 경쟁 부추기나

27일 순천·다음달 6일 목포 동·서부권 나눠 유치 토론회 지역간 경쟁·갈등 강화 우려

전남도의회가 ‘의과대학 유치 토론회’를 순천과 목포에서 각각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동·서부권으로 갈린 유치 목소리를 단일화하는 데 앞장서기는 커녕,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저마다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내놓고 의대 신설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순천과 목포에서 27일과 다음달 6일 각각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27일 열리는 순천 토론회는 순천 출신 신민호(더민주·순천 6) 전남도위원을 좌장으로, 다음달 6일 목포대 토론회에는 목포 출신 최선국(더

민주·목포 1) 전남도위원이 좌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한다.

발제자도 순천 토론회의 경우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나서 ‘전남 의료 취약성 분석 및 의대 설치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목포 토론회에서는 송하철 목포대 교수가 ‘전남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가제)’을 주제로 발표하는 가 하면, 순천의료원장·목포의료원장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이 때문인지 ‘지역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진행했다’는 도의회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으로 ‘전남권 의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를 놓고 목포와 순천이 치열하게 맞붙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도의회가 ‘전남 의대 유치’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지역 간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7월 목포·순천 출신 도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까지 꾸려놓았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과 출신 대학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자칫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쳐질만하다.

전남도가 최근 동·서부권으로 나뉘어 진행중인 유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목포대·순천대와 각 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립 의대 유치 테스크포스’를 개편하고 의대유치 공동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행보와도 사뭇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열리는 토론회다보니 목포·순천으로 나눠 됐지만 특정 지역이 아닌 의료 취약지대인 전남지역 의료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로, 전남에 의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주말 32.8%로 떨어져

리얼미터 조사...긍정 평가 34.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주간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하며 30% 중반대를 유지했으나, 일간 기준으로는 주초 36.4%에서 주말 32.8%로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상대로 묻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6%, 부정 평가는 62.2%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0.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여섯 차례의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0%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부정 평가는 60%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서서히 변했다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조사 기간 내 일간 지표를 보면 긍정 평가는 지난 20일 36.4%에서 21일 34.8%, 22일 34.9%, 23일 32.8%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20일 60.2%에서 21일 61.4%, 22일 61.6%, 23일 64.2%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0%, 국민의힘이 37.5%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른 3.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